

1인 창조기업의 손익분기점 도달 영향요인 분석*

김선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병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the Achievement of Break-even Point among the Creativity and Skill-based Sole Proprietors

Sun-Young Kim^a, Byung-heon Lee^b

^a Small Business Policy Research Center,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South Korea

^b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1, Revised 18 March 2021, Accepted 25 March 2021

Abstract

Purpose - The break-even point refers to the point where total profit and total cost coincide, and from this point on, the entrepreneur's decision-making takes a different route. Strategic decisions can be made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and eventually for more likelihood for growth and sustainability if a startup figures out when it recoups the investment and switches to a net profit. **Design/methodology/approach** - 748 creativity and skill-based sole proprietors in manufacturing industry were examine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ducation level, the business launch preparation time, or the self-financing on the achievement of break-even point.

Findings - While the business launch preparation time lowered the likelihood of reaching a break-even point, self-financing increased the likelihood.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by subdividing into subgroups according to skill level, only the business launch preparation tim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highly skilled industries. In the low skilled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business launch preparation time, the CEO's education level and the self-financ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longer the business launch preparation time, the higher the start-up cost, which increases the burden of initial cost recovery, and the agile response to market changes is thereby delayed, resulting in the business idea losing its appeal. Self-financing not only provides stability and strong motivation for the business operation but also promotes careful spending which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break-even point.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practical experience is more useful than theoretical knowledge in low skilled industries. Due to the limitation of secondary data based on the recollection, the time required to reach a break-even point, percentage of financing sources, etc. may include cognitive errors. In addition, variables are not included that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ity and skill-based sole proprietorship, so it is necessary to exercise caution with the actual application

Keywords: Creativity and Skill-based Sole Proprietor, Break-even Point, Business Paunch Preparation Time, Self-financing, CEO's Education Level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 이 논문은 2017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 First Author, E-mail: sunniee07@gmail.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bhlee@kw.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IT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플랫폼 등장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 개인주의와 전문가 우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최근,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업종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저비용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방송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했다면 (Rifkin, 2012), 4차 산업혁명은 지능기술을 기반으로 개별 인간에 꼭 맞는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를 꾀한다 (이민화, 2019). 이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고객 맞춤형이라는 모순된 목표 달성에 1인 창조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집약적 특성, 민첩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과와 일자리 창출은 이후 성장 단계에서 나타난다(김선화, 2011).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생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발간하는 생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생기업은 92만 개로 전년 대비 0.7%(7천 개) 증가했고 이들의 1년 생존율은 65.0%, 5년 생존율은 29.2%였다. 종사자 수 1인 기업의 생멸이 두드러졌는데, 2018년 신생기업 중 89.3%(82만 1천 개), 2017년 전체 소멸기업의 92.2%(4만 4천개)가 종사자 수 1인 기업이었다. 1인 창조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은 매출수량 그래프에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가리키며, 실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영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과 후의 핵심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경영자의 관심과 활동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의사결정의 기준이 바뀐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 경영자는 투자비 회수와 생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이후에는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신생기업이 언제, 얼마만큼의 제품을 팔았을 때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순이익으로 전환하는지 안다면,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세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본 논문은 1인 창조기업이 손익분기점 도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자 특성(학력, 창업 경험)이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2) 자원조달 능력(창업 준비 기간, 자본금 조달 원천)이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2017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창업 준비 기간이 길수록, 민간금융으로부터의 용자를 많이 받을수록 손익분기에 도달하는 기간이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1. 창업자 특성과 기업생존의 관계

대다수 기업은 1인 단독창업이나 2~3명의 공동창업 형태로 시작하며, 신생기업의 운영과 관리는 이미 성장한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창업 후 성장 궤도에 안착한 기업은 그동안 축적한 성과와 노하우(know-how), 인지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조직 내 구축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나 교육 훈련 등에 집중한다. 그러나 신생기업은 과거 실적이 없거나 미비하므로 기업의 생존에 창업자의 특성과 역량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Bruderl et al., 1992).

Light and Gold(2000)은 벤처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창업자 특성을 인적자본, 재무 자산,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여기서 인적자본은 창업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 등을 뜻하며, 재무 자산은 창업자의 재정 능력, 문화적 자본은 개인이 가족과 사회적 배경, 교육 등을 통해 축적한

도덕, 가치, 윤리, 관습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창업자의 인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평판을 가리킨다.

이용희와 박수홍(2014)은 벤처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창업자 특성 중 경력과 성취 욕구, 목표 지향 등에 초점을 두고 인터뷰했다. 사례분석 결과, 창업자의 교육 수준과 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동필(2018)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 창업자가 고학력일수록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성과가 저조했으며, 과거 창업 경험 여부는 유의미한 성과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또한, 3년 이하 기업에서 창업자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일 때 초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실증했다.

1인 창조기업은 규모가 작고 조직이 단순하므로 창업자의 인적자본 특성은 창업기업 생존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Uchasaran et al., 2008). 창업가의 인적자본은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되는데, 이때 경험은 과거 창업 경험이나 배태 조직에서의 근무경험 등을 통해서, 지식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인적자본은 창업자가 내재화한 고유의 암묵지이므로 모방과 대체가 어려우므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창출에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Barney, 1991).

가설 1. 창업자의 인적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존확률은 커질 것이다.

가설 1-1. 창업자가 창업 경험이 있으면 기업의 생존확률은 커질 것이다.

가설 1-2. 창업자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생존확률은 커질 것이다.

2. 창업기업의 자원과 기업생존의 관계

신한은행의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창업 준비 기간이 짧아지며, 비용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창업 준비 기간 1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79.8%에 달했으며, 평균 창업비용은 8,148만 원으로 창업자 중 절반이 대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는 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 원(70.0%)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말미에는 신중한 준비 없는 '묻지마 창업' 행태가 높은 폐업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업절차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과거와 달리 기업을 설립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창업 준비 기간(gestation period)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거치면서 창업 실현이 결정된다(Sequeira et al., 2007). Davidsson(2006)은 초기 창업가는 창업 아이디어의 발견(discovery process)과 활용(exploitation process)이라는 준비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Sequeira et al.(2007)은 초기 창업자(nascent entrepreneur)의 창업 준비 행동에는 기회 인식과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실행 그리고 제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 및 수정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Lee and Park(2011)은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으로 자금 부족이나 기술경쟁력 미비, 경영마인드와 경험 부족을 꼽지만, 대부분 경영관리의 근간이 되는 창업기획력 부재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창업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중하면서 체계적인 창업 준비는 창업 이후의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설 2. 창업 준비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생존확률은 커질 것이다.

과거에는 법인 창업에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이 필요했지만,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자본금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보증금이면서 사무실 임대, 집기, 비품 구매, 사업 정상화 전까지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자가 가지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과 의지, 현신의 대리지표로써 벤처캐피탈 투자나 관공서 입찰, 기업 진단,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본금 규모를 평가 지표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자본금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가 자본금(seed money)을 조달하는 원천으로는 자기자본(equity capital source)와 타인자본(depth capital source)이 있으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 상환의 책임 유무다. 자기자본으로는 창업자나 공동창업자가 각출하는 종자돈부터 3F(Family: 가족, Friends: 친구, Fools: 바보)로 통칭하는 지인,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이 있다. 타인자본에는 금융권이나 저리 대출 방식의 정책 자금 등이 포함된다.

Modigliani and Miller(1958, 1963)이 처음 제시한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른 연구 이후 자금조달에 관심이 증가했다. Modigliani and Miller(1963)는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이 기업 가치를 가장 높이므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Myers(1984)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원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조달비용이 저렴한 부채, 외부투자 순으로 우선순위(pecking order theory)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창업 초기를 벗어나 성장기나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방식의 차이와 효율성을 분석하거나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의 투자, 정책적 지원금의 성과와 효율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창업기업의 자본금 구조에 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원천별 자금 제공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이 미흡하다. 즉, 지인들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기대감, 회사 성장에 대한 잠재력보다는 개인에 대한 믿음 혹은 의리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은 기업이 가진 기술 잠재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금융권은 투자 회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창업자금 중 자기조달자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생존확률은 커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1. 표본과 자료 수집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¹⁾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를 말한다²⁾.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창업 및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조사는 전년도 연말 기준 국내 사업체(통계청 ‘15년 경제총조사에서 조사된 사업체 근거) 중 업종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4,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인 창조기업 대부분이 단독창업(98.4%)하였음을 반영하여 공동창업 기업은 삭제했다. 업종에 따라 손익분기 도달 시점이나 투자회수액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다. 기업 운영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으므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가 안정세로 진입했다고 판단한 2010년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 제한했고, 표본 수가 매우 적은 2016년 창업 표본은 삭제했다. 정제 후 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은 748개다. 748개 표본 중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기업은 704개(94.1%)였고, 나머지

1) 임시, 일용, 상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노동자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때,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44개 기업(5.9%)은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중도절단(censored data, termination of study) 상태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location	freq.	%	Industry	freq.	%	Year of Launch	freq.	%
서울	74	9.9	식품 제조업	69	9.2	2010	76	10.2
인천/경기	135	18.0	음료 제조업	25	3.3	2011	73	9.8
충청권	146	19.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3	4.4	2012	102	13.6
호남권	108	14.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	2.8	2013	114	15.2
영남권	228	30.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2	2.9	2014	147	19.7
강원/제주	57	7.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1	2.8	2015	236	31.6
전체	748	10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2.3	전체	748	10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9	5.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8	6.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4	4.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54	7.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7	6.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1	5.5			
			전기장비 제조업	47	6.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0	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2.7			
			가구 제조업	41	5.5			
			기타 제품 제조업	36	4.8			
			전체	748	100.0			

2. 변수의 측정

주요 연구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Dependent	Break-even Point (t)	Time required to reach a break-even point	Time required to reach a break-even point after launching the business was measured in the number of years (00 years and 00 months) e.g.) 3 years and 2 months=(3*12+2)/12=3.2 years
	Break-even Point (D)	Whether a break-even point was reached	0: Not yet reached a break-even point; 1: Reached a break-even point
Independent	CEO's Experience (D)	Past entrepreneurial experience	0: No; 1: Yes
	CEO's Education Level (D)	CEO's highest education level	1: High school diploma or lower; 2: (Associate) Bachelor's degree; 3: Master's degree
	Business Launch Preparation Time	Tim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launch of current business	Time(months) required between the decision to start a business and the its registration
	Financing	Source of financing for initial investment	Percentage(%) of self-financing, friends/relatives, government funding(including subsidy), or others(including private loan)
Control	Year of Launch (D)	Year of initial business registration	Year of initial business registration
	Industry (D)	KSIC code (9th)	Medium classification of KSIC
	Initial Investment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at the time of business launch	Total amount of investment garnered at the time of business launch (Unit: Million won)

3. 분석방법

생존분석은 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생존요인을 찾는 데 활용하는 기법이다. 환자의 사망이나 질병 발생, 재발, 기업 도산, 재범에 걸리는 시간 등 특정 사건(event)이 발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초자료로 생존확률이나 사건발생위험률(hazard rate)을 계산한다(허명희 & 박미라, 1991). 이 자료의 특징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이 조사 대상자마다 달라서 시간 변수가 정규분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연구 종료(termination of study), 추적 실패(Loss to follow up), 연구 제외(drop out), 연구와 무관한 이유로 사건 발생(event from unrelated causes) 등의 사유로 중도절단(censoring)이 발생한다는 점이다(Luoma & Laitinen, 1991).

사건 발생 소요 시간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그 시점 이후에 일어난 중도절단 사건에 대해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표본의 생존여부를 0과 1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모든 자료의 사건 발생 기간(생존 기간)이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생존분석은 중도절단을 포함한 사건 발생 여부와 기간 모두를 종속변수로 다룬다.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 Hazard Model)은 생존시간에 대한 분포, 즉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비모수적이지만, 설명변수(공변량) 벡터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고 회귀계수를 추정하므로 모수적 방법과 유사해 준모수적(semi-parametric)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생존기간을 모르더라도 비례항의 개인별 차이와 생존기간 순위 차이의 연관관계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을 식별할 수 있다. 즉, 여러 설명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는 다변량 분석에

적합하며, 상대적인 위험(Relative Hazards)을 계산해주므로 널리 활용된다(송경일 & 최종수, 2013).
 본 연구에서의 사건 발생(event)은 환자의 사망이나 기업의 부도출 등을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달리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이므로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 지향점을 가진다. 즉, 선행 연구에서의 위험율(hazard ratio)을 연구 맥락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손익분기점 도달이라는 종속변수를 고려하여 도달률로 재정의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주요 연구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1] 손익 분기점(t)	[2] 손익 분기점(D)	[3] 대표 창업 경험(D)	[4] 대표 학력 고졸 이하	[5] 대표 학력 (전문)대졸	[6] 대표 학력 대학원졸	[7] 창업 준비 기간	[8] 자금조달 _자기자금	[9] 자금조달 _지인	[10] 자금조달 _정책자금	[11] 자금조달 _기타	[12] 창업 자금
[2]	-.423 **	1										
[3]	.013	.055	1									
[4]	-.015	-.051	-.842 **	1								
[5]	.005	-.005	-.264 **	-.299 **	1							
[6]	.043	-.043	.069 †	-.055	-.024	1						
[7]	.096 **	-.088 *	.006	-.005	-.001	.000	1					
[8]	-.140 **	.077 *	-.005	.007	-.005	-.093 *	-.046	1				
[9]	.024	.034	.032	.001	-.058	.038	-.044	-.422 **	1			
[10]	.010	-.045	-.094 *	.036	.101 **	.054	.059	-.461 **	-.126 **	1		
[11]	.156 **	-.088 *	.063 †	-.041	-.038	.046	.043	-.587 **	-.104 **	-.171 **	1	
[12]	.082 *	-.069 †	-.091 *	.061 †	.051	.116 **	.084 *	-.115 **	-.037	.099 **	.093 *	1
10년(D)	.331 **	.046	.014	.008	-.040	-.006	-.040	-.032	.053	-.031	.028	-.015
11년(D)	.068 †	.044	.081 *	-.078 *	-.004	.014	.009	.054	.037	-.090 *	-.021	-.073 *
12년(D)	.128 **	.033	.028	-.014	-.024	-.055	-.027	-.027	.004	-.009	.040	-.037
13년(D)	.108 **	-.036	.033	-.027	-.010	-.007	-.021	-.007	.009	-.016	.016	.045
14년(D)	-.104 **	.024	-.059	.056	.005	.018	.029	.036	-.037	.019	-.035	-.027
15년(D)	-.348 **	-.075 *	-.056	.028	.049	.026	.031	-.019	-.036	.080 *	-.017	.072 *
평균	1.66	.94	.43	.49	.09	.35	12.20	72.01	6.73	8.97	12.29	89.68
표준편차	1.19	.24	.49	.50	.28	.48	15.99	32.83	19.19	21.83	25.01	174.62
최소값	.08	0	0	0	0	0	.30	0	0	0	0	1
최대값	7.67	1	1	1	1	1	12	100	100	100	100	3000

주1) ** p<.01, * p<.05, †p<.10

주2) t stands for time variable, D stands for a dummy variable, 업종변수는 지면 부족으로 표기를 생략함

주요 변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계수가 0.8 이하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³⁾. 그러므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3) 대표자의 창업 경험과 학력 중 고졸 이하 간에 -0.842라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1과 0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들 간에 관계이므로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2. 생존분석

우선, 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만 포함한 모형과 독립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모형 간에 차이를 검정하는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했다. 창업 연도, 업종, 창업자금 등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1의 로그우도(-2LL)는 8195.271, 대표자 학력과 경험, 창업 준비 기간, 자금조달 원천 등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2의 로그우도(-2LL)는 8179.861이었으며,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했다. 두 모형 간에 우도비 차이는 15.410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했다. 그러므로 두 모형 모두 최소한 1개 이상의 회귀계수가 0이 아니며, 독립변수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우도비 차이가 유의했으므로 설정한 독립변수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창업 준비 기간(B=-.007, $p < .01$)은 유의미한 부(-)의 값을, 자기자금(B=.004, $p < .05$)에 의한 자금조달(B=.016, $p < .10$)은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가진다. 회귀계수 해석을 위해 추정치를 변환한 승산비(odds ratio)를 산출했는데, 이를 통해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hazard ratio)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창업 준비 기간의 exp(B) 값이 0.993이므로 다른 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창업 준비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손익분기점 도달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자기 자금조달의 exp(B) 값은 1보다 큰 1.004이므로 다른 변수의 조건이 같을 때 자기 자금조달 비중이 1% 증가하면 손익분기점 도달률이 높아진다.

Wald 추정량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모형 기여도(contribution)를 알 수 있는데, 이 값이 클수록 모형 기여도가 커진다. 손익분기점 도달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세 개 변수 중 Wald 추정량이 가장 큰 변수는 창업 준비 기간(6.930)이며, 자기자금에 의한 자금조달(4.95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alysis Results

	Model1				Model2			
	B	표준 오차	Wald	Exp (B)	B	표준 오차	Wald	Exp (B)
10년 창업(D)	-1.237**	.155	63.840	.290	-1.272**	.156	66.866	.280
11년 창업(D)	-.777**	.149	27.168	.460	-.806**	.151	28.567	.447
12년 창업(D)	-.879**	.134	42.744	.415	-.909**	.135	45.408	.403
13년 창업(D)	-.839**	.130	41.676	.432	-.863**	.131	43.687	.422
14년 창업(D)	-.362**	.113	10.268	.696	-.384**	.114	11.464	.681
KSIC10(D)	-.227	.210	1.170	.797	-.246	.214	1.329	.782
KSIC11(D)	-.134	.271	.246	.874	-.057	.275	.044	.944
KSIC13(D)	.483†	.248	3.785	1.620	.561*	.251	4.996	1.752
KSIC14(D)	.193	.278	.485	1.213	.259	.283	.836	1.296
KSIC15(D)	-.006	.275	.000	.994	-.016	.276	.003	.984
KSIC16(D)	.392	.278	1.990	1.480	.415	.282	2.165	1.514
KSIC17(D)	-.109	.305	.128	.897	-.078	.306	.066	.925
KSIC18(D)	-.047	.234	.040	.954	-.072	.236	.092	.931
KSIC20(D)	-.473*	.237	3.981	.623	-.452†	.239	3.588	.636
KSIC21(D)	-.432	.306	1.993	.649	-.408	.309	1.750	.665
KSIC22(D)	-.774**	.264	8.572	.461	-.758**	.265	8.159	.469
KSIC23(D)	.440†	.255	2.971	1.553	.420	.257	2.678	1.522
KSIC25(D)	.013	.218	.003	1.013	-.002	.221	.000	.998
KSIC26(D)	.052	.228	.051	1.053	.041	.230	.032	1.042
KSIC27(D)	-.178	.238	.556	.837	-.131	.242	.293	.877

KSIC28(D)	-.219	.232	.893	.803	-.236	.234	1.010	.790
KSIC29(D)	-.127	.214	.352	.881	-.142	.215	.436	.868
KSIC30(D)	.532 *	.260	4.198	1.703	.483 †	.263	3.376	1.620
KSIC31(D)	.020	.290	.005	1.020	.026	.292	.008	1.027
KSIC32(D)	-.582 *	.243	5.710	.559	-.482 †	.246	3.835	.617
창업자금(백만원)	.000 †	.000	2.870	1.000	.000	.000	1.328	1.000
대표자 경험(D)					-.041	.084	.242	.959
대표자 학력_(전문)대졸(D)					-.142	.152	.878	.867
대표자 학력_대학원졸(D)					.058	.083	.494	1.060
창업 준비 기간(개월)					-.007 **	.003	6.930	.993
자금조달_자기자금(%)					.004 *	.002	4.956	1.004
자금조달_친구/친인척(%)					.002	.002	.962	1.002
자금조달_정책자금(%)					.002	.002	.454	1.002
-2Log Likelihood(LL)	8195.271			8179.861				
Chi-square	160.856 **			176.007 **				
△Chi-square	-			15.410 *				

Notice 1) ** p<0.01, * p<0.05, †p<0.10

Notice 2) D stands for a dummy variable; the basis of the year of business launch is 2015; the basis of the industry is KSIC 33; and the CEO's education level is high school diploma

Notice 3) Different sources of initial investment need to sum up to 100%, so other funding sources have been exclud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multicollinearity

Notice 4) The maximum variance expansion index (VIF) of Model 2 is 2.738, which is less than 10 and thus the possibility of multicollinearity is low

3. 추가분석

업종별로 취급하는 제품의 특성(일상재, 산업재 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설비 투자나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달라지고 기존 유통망에 대한 접근 등 경쟁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가승인통계인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의 기술수준별 분류를 참고하여 중분류(2단위) 기준으로 업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⁴⁾.

업종별 차이를 검증하려면 집단별로 누적위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접점이 없는지, 즉 비례위험가정을 만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확인 결과,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이 나타나서 집단 차이를 검증하는 대신, 업종별로 어떤 요인이 손익분기점 도달률에 영향을 끼치는지 표본을 달리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방식의 추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저기술 업종에서만 투입한 독립변수의 기여도가 유의미했고, 고기술 업종에서는 모형 설명력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Table 5〉 참조).

- 4) ① 첨단기술 업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C313)
 ② 고기술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철도장비(C312), 그 외 기타운송 장비(C319)
 ③ 중기술 업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C25),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
 ④ 저기술 업종: 식료품(C10), 음료(C11), 섬유제품(C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목재 및 나무제품(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C33)

Table 5. Omnibus Tests of Model Coefficients for Each Group

	Model	-2Log Likelihood(LL)	Overall(score)			Change From Previous Step		
			χ^2	d.f	p	χ^2	d.f	p
첨단	Contro l	805.800	9.563	8	.297	-	-	-
	Full	804.265	11.141	15	.743	1.536	7	.981
고	Contro l	1677.015	46.312	10	.000	-	-	-
	Full	1669.199	54.516	17	.000	7.816	7	.349
중	Contro l	852.089	34.023	8	.000	-	-	-
	Full	848.579	37.023	15	.001	3.510	7	.834
저	Contro l	3069.692	80.042	15	.000	-	-	-
	Full	3055.205	94.036	22	.000	14.487	7	.043

고기술 업종으로 분류된 표본은 201개였으며, 이 중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기업은 186개(92.5%), 미처 도달하지 못한 기업은 15개(7.5%)다. 저기술 업종의 표본 수는 네 개 분류 중 가장 많은 324개이고, 그중에서 손익분기에 도달한 기업은 312개(96.3%), 중도절단 상태 기업은 12개(3.7%)다.

고기술 업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인 창업 준비 기간의 Exp(B) 값은 0.988로 창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익분기점 도달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Highly Skilled Industries

	Model1				Model2			
	B	표준 오차	Wald	Exp (B)	B	표준 오차	Wald	Exp (B)
10년 창업(D)	-1.660**	.369	20.239	.190	-1.826**	.385	22.462	.161
11년 창업(D)	-.910**	.333	7.483	.403	-.978**	.337	8.409	.376
12년 창업(D)	-.729**	.266	7.492	.482	-.844**	.274	9.488	.430
13년 창업(D)	-.994**	.242	16.874	.370	-.987**	.246	16.058	.373
14년 창업(D)	-.517*	.203	6.507	.596	-.590**	.208	8.035	.554
KSIC20(D)	-.543†	.286	3.598	.581	-.558†	.298	3.510	.572
KSIC28(D)	-.208	.281	.550	.812	-.258	.290	.792	.772
KSIC29(D)	-.122	.273	.201	.885	-.128	.279	.209	.880
KSIC30(D)	.518†	.312	2.754	1.679	.530	.327	2.626	1.699
창업자금(백만원)	.000	.000	.777	1.000	.000	.000	.270	1.000
대표자 경험(D)					.130	.166	.606	1.138
대표자 학력_전문대졸(D)					.038	.167	.051	1.038
대표자 학력_대학원졸(D)					.113	.307	.135	1.120
창업 준비 기간(개월)					-.012*	.006	4.090	.988
자금조달_자기자금(%)					.002	.003	.341	1.002
자금조달_친구·친인척(%)					.005	.006	.668	1.005
자금조달_정책자금(%)					-.002	.005	.135	.998
-2Log Likelihood(LL)	1677.015				1669.199			
Chi-square	46.312**				54.516**			
△Chi-square	-				7.816			

Notice 1) ** p<0.01, * p<0.05, †p<0.10

Notice 2) D stands for a dummy variable; the basis of the year of business launch is 2015; the basis of the industry is KSIC 33; and the CEO's education level is high school diploma

저기술 업종을 대상으로 검증한 생존분석에서는 창업 준비 기간(Exp(B)=.992, $p < .05$) 외에 대표자의 학력(Exp(B)=.623, $p < .10$)과 자기자금에 의한 자본조달(Exp(B)=1.005,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창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익분기점 도달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다른 표본에서처럼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자의 학력이 고졸 이하 대비 대학원 졸업 이상일 때 손익분기점 도달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금에 의한 자본조달의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손익분기점 도달률이 증가하였다. Wald 값을 통해 유의미한 세 변수 중 창업 준비 기간의 모형 기여가 가장 크고, 자기자금에 의한 자본조달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대표자 학력 순으로 공헌함을 알 수 있다.

Table 7.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Low Skilled Industries

	Model1				Model2			
	B	표준 오차	Wald	Exp (B)	B	표준 오차	Wald	Exp (B)
10년 창업(D)	-1.276**	.224	32.403	.279	-1.317**	.228	33.319	.268
11년 창업(D)	-.745**	.216	11.884	.475	-.774**	.223	12.068	.461
12년 창업(D)	-1.136**	.207	30.193	.321	-1.115**	.209	28.568	.328
13년 창업(D)	-.778**	.196	15.694	.459	-.803**	.198	16.430	.448
14년 창업(D)	-.395*	.180	4.830	.674	-.428*	.182	5.544	.652
KSIC10(D)	-.223	.212	1.113	.800	-.324	.223	2.100	.724
KSIC11(D)	-.147	.277	.282	.863	-.051	.290	.031	.950
KSIC13(D)	.517*	.254	4.140	1.677	.537*	.262	4.212	1.711
KSIC14(D)	.214	.280	.583	1.238	.212	.293	.522	1.236
KSIC15(D)	.023	.277	.007	1.023	-.030	.281	.012	.970
KSIC16(D)	.422	.281	2.255	1.525	.398	.291	1.881	1.490
KSIC17(D)	-.046	.307	.023	.955	-.037	.311	.014	.964
KSIC18(D)	-.001	.236	.000	.999	-.072	.239	.092	.930
KSIC32(D)	-.618*	.247	6.274	.539	-.549*	.253	4.693	.578
창업자금(백만원)	-.001	.000	1.979	.999	.000	.000	.975	1.000
대표자 경험(D)					-.028	.125	.051	.972
대표자 학력_전문대졸(D)					-.066	.127	.269	.936
대표자 학력_대학원졸(D)					-.474†	.270	3.086	.623
창업 준비 기간(개월)					-.008*	.003	5.195	.992
자금조달_자기자금(%)					.005*	.002	4.524	1.005
자금조달_친구/친인척(%)					.004	.004	1.288	1.004
자금조달_정책자금(%)					.004	.004	1.177	1.004
-2Log Likelihood(LL)	3055.205				3054.755			
Chi-square	80.042**				94.036**			
△Chi-square	-				14.487*			

Notice 1) ** $p < 0.01$, * $p < 0.05$, † $p < 0.10$

Notice 2) D stands for a dummy variable; the basis of the year of business launch is 2015; the basis of the industry is KSIC 33; and the CEO's education level is high school diploma

V. 결론 및 토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 748개를 대상으로 손익분기점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했다. 손익분기를 기준으로 창업자의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둔다면, 이후에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하여 사업 확장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이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손익분기점 도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8천만 원을 웃도는 높은 창업 비용에 반해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3개월 미만이 30%, 1년 미만이 80%에 달한다. 이는 '17년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 65.0%(제조업 72.4%), 5년 생존율 29.2%(제조업 39.9%)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통계청, 2019).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창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상을 적게 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린 스타트업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린 스타트업은 제품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가치 가설), 지속가능한 방식(비용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성장하는지(성장 가설)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에 최소기능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출시를 반복한다(Eric, 2011). 실증 결과는 1인 창조기업은 전문성과 창조적 성격을 가진 기업이므로 시장과 괴리하지 않고,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서 잘못된 가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수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술 수준에 따른 추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고기술 업종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의 복잡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창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입 자금이 많아지므로 회수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⁵⁾. 반면, 저기술 업종은 기술력보다는 상품 출시의 적시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s) 충족 등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업종에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신 신중한 창업 준비 전략을 추구한다면, 시간 지연에 따른 사업 아이디어의 매력 감소와 상품의 시장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1인 창조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가는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창업 준비 기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창업 기본 과정 이수 후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 중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이 많아질수록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자본은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중한 지출과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금조달의 비중이 커질수록 손익분기점 도달 가능성은 커진다.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기술이나 사업화의 매력도가 낮아서 외부로부터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기술 업종에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 결과는 예비 창업가에게 자기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활동비 등 기본자금을 창업자가 충분히 마련하고 창업을 시도할 때 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정책 자금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창업가의 인적역량이 손익분기점 도달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저기술 업종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증 결과, 창업자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 때 보다 대학원 졸업일 때 손익분기점 도달 가능성이 작았다. 이러한 실증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저기술 업종에서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이론 지식보다 실무경험이 좀 더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으려면 사업이 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손익분기점은 그 첫 번째 관문으로써 의의가 있다. 신생기업과 VC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업의 운영 전략이 달라지는 기점이 되는 손익분기점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성장 이전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검토할

5) 748개 표본에 대해 4개 업종별 평균 창업자금을 살펴보면, 첨단기술 업종은 1억 100만 원, 고기술 업종은 1억 800만 원, 중기술 업종은 9,600만 원, 저기술 업종은 7,200만 원이었음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상 방식(recall)의 2차 설문 자료의 한계로 손익분기점 도달에 걸린 기간이나 자금원천별 비중을 주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인식에 의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전문성과 창조성 등 1인 창조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석 결과의 실례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References

- 김선화 (2011), 10%의 기업이 46%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서울연구원*, 2011.8. issue 01_1
- 송경일, 최종수, 2013, SPSS 15를 이용한 생존자료의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신한은행, 2018,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 이민화, [특별기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CEO NEWS*, 2019.5.2.
- 이용희, 박수홍 (2014), 벤처기업 창업자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탐색, *벤처창업연구*, 9(6), 231-244.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2019),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 천동필 (2018), 창업자 특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4), 1-12.
- 통계청 (2019),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 허명희, 박미라, 1991, SAS와 NCSS를 이용한 생존분석, 서울: 자유아카데미
-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ruderl, J., P. Preisendorfer and R. Ziegler (1992), "Survival Chances of Newly Founded Business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2), 227-242.
- Davidsson, Per. (2006), *Nascent Entrepreneurship: Empirical Studies and Developments*,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 Ries, E. (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Crown Publishing Group.
- Lee, K. G., and H. P. Park (2011), "The Study of the Value Capability Index(CvI) for Successful Business", *Journal of Sustainability Research*, 2(3), 11-28.
- Light, I., and S. Gold (2000), *Ethnic Economies*, San Diego: Academic Press.
- Luoma, M and EK. Laitinen (1991), "Survival Analysis as a Tool for Company Failure Prediction", *Omega*, 19s6), 673-678.
- Modigliani, F., and M. H. Miller (1958),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8(3), 261-297.
- Modigliani, F., and M. H. Miller (1963), "Corporate Income Taxes and the Cost of Capital: a Correc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3), 433-443.
- Myers S. C. (1984), "The Capital Structure Puzzle", *The Journal of Finance*, 39(3), 574-592.
- Rifkin, J. (2012),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안진환 역, 서울: 민음사
- Sequeira, J., S. L. Mueller and J. E. McGee (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3), 275-293.
- Ucbasaran, D., P. Westhead and M. Wright (2008),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Pursuit: Does an Entrepreneur's Human Capital Matter?", *Small Business Economics*, 30(2), 153-173.